

전북 국가예산 9조원대 확보

도·정치권·도민 등 한마음으로 뭉쳐



전북도는 새만금 SOC 예산을 포함한 전북의 국가예산 9조원대 확보는 전북도정과 의회, 여야 정치계, 도민 등이 한마음으로 뭉쳐 뚫은 결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30일 국회를 찾은 김관영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총약포 원내대표와 새만금 예산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SOC 예산을 포함한 전북의 국가예산 9조원대 확보는 전북도정과 의회, 여야 정치계, 도민 등이 한마음으로 뚫은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나 잼버리 파행논란 이후 대폭 삭감됐던 새만금 SOC 사업예산의 복원은 김관영 도지사가 민선 8기 입성부터 줄곧 주창해온 '여야 협치의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물론 새만금 SOC 예산의 완전복원은 못미처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래도 막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복원된다는 승부사적 기질을 지닌 김 지사의 치밀한 협상력과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인맥 파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가 새만금예산을 대폭삭감한 이후 협상 막판까지 전북도와 민주당의 복원 요청에도 꺾이지 않아 예산 증액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이었다. 특히나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으로 부처에서 올린 580억을 66억원까지 대폭 삭감한 것은 전북으로서의 가장 큰 타격이자 위기였다. 하지만 막판에 새만금공항 예산이 최종 327억으로 50% 넘게 살아난

새만금 예산, 증액 불가능 우려 속 일부 복원 이뤄내 김 지사 협상력·도의회 의원들의 투지 등이 원동력

것도 김 지사가 여야 원내대표 최종 협상에서 배수진을 치고 인내심을 갖고 그들을 막판까지 설득한 덕분이었는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서로 밀고 당기는 수차례의 협상에서 새만금예산을 지켜낸 그 막후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이 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흥외표 원내

대표와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예결소위 위원으로 최전선에서 싸운 이원택 의원 등의 노고도 빼놓을 수 없다. 협치의 한축인 국민의 힘 정운천 의원과 이용호 의원의 협조와 협력 정신도 이번 예산회복 과정에서 빛을 발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과 김정기 새만금지임특별위원장 등을 비롯한 도의회 모든 의원들의 협력, 헌신, 희생은 흘러져 있던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전북도는 밝혔다. 도의회 의원들은 삭발투쟁과 마라톤 릴레이 시위, 국회 앞 규탄시위 등을 주도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투사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 도민과 언론으로부터 큰 박수와 격려를 받았다. 아울러 예산심의 고비 마다 전략적 대응에 적극 가세해준 14개 시군 단체장들의 성원과 지지도 이번 예산복원에 큰 힘이 됐다. 도 관계자는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 복원과정에서 보여준 '원팀' 정신이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해트트릭' 성과, 잼버리 이후 도정 회복 동력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유치 전북특별법 전방개정안 통과 새만금 국제공항 등 예산 확보



전북도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와 전북특별법 개정안 통과, 새만금 공항을 비롯한 SOC 국가예산 확보 등 이른바 '해트트릭' 성과가 회복의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 유치 확정에 김관영 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축하해주고 있는 모습(사진 왼쪽)과 지난달 29일 전북도 서울본부에서 열린 국가예산 확보 워룸 회의.

잼버리 파행 이후 다소 어수선했던 전북도정 분위기가 연이어 거둔 성과로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와 전북특별법 개정안 통과, 새만금 공항을 비롯한 SOC 국가예산 확보 등 이른바 '해트트릭' 성과가 회복의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전북도의 첫 골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터졌다. 국내외 한인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행사인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가 성공한 것. 전북은 컨벤션이 없다는 약점에도 유력한 경쟁지였던 인천과 제주를 제쳤다. 김관영 도지사의 프레젠테이션과 전방위 설득 전략이 개최 결정의 열쇠를 쥔 각국 운영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후문이다. 내년 10월 전북 전주 일원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는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리더 3천 명이

참가한다. 잼버리 파행의 아픔을 전북의 힘으로 극복해 내는 무대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지목되는 이유다. 도(道)는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방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에 성공했다. 지역 정치권과의 협치와 공조로 발의 100일 만에 법안이 통과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개정안에는 131개 조문, 333개의 특례 조항이 반영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 내용이 부족했던 전북특별자치도법은 1년여의 노력 끝에 특별한 전북을 위한 내실 있는 법으로 환골탈태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전북도는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과 국제제이콤파크 설립, 고령친화산업 육성, 출입국 관리법 특례 등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도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제대로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정의 연말 마지막 퍼즐이었던 국가예산도 벉랑 끝에서 회색했다. 잼버리 파행 논란의 불꽃은 엉뚱하게도 국가예산에 튀었다. 전례 없는 정부의 국가예산 삭감 방침에도

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했다. 도는 예산 정상화에 사활을 걸었다. 김 지사와 도 간부들은 국회 근처에 국가예산회동전략을 위한 '워룸(war room)'을 설치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도 삭발과 단식, 마라톤 투쟁과 상경 집회를 펼치면서 힘을 보탤었다. 정부안에서 1,479억원까지 쪼그라들었던 새만금 SOC 예산은 새만금공항 예산을 포함해 4,513억원까지 회복되면서 전북도는 기반 시설 조성의 불씨를 결국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김재훈 기자

3총리 회동, 이번주 성사되나

이낙연 전 총리·정세균 전 총리, 민주당 문제 우려에 공감 이 전 총리 측 "적절한 상황 조성 시 김부겸 포함 3총리 회동" 김부겸 전 총리도 화답... "날짜 조율 중" 이번주에 만날 듯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회동을 통해 민주당 문제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3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도 이에 화답하며 이들은 이르면 이번주 주중에 '3총리 회동'을 성사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정 전 총리와 1시간 가량의 일대일 조찬 회동을 했다. 이 전 총리는 회동을 마친 뒤 입장문을 통해 "두 사람은 국가와 민주당 문제를 함께 고민하겠다"며 "두 사람은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3총리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도 설명했다. 이 전 총리 측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국민 삶에 어려운 부분에도 담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당내 일각에서) 통합비대위 제안도 있고 그런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말씀을 많이 나눴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 측도 '3총리 회동'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김 전 총리가 지난 24일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났는데 그때 (이낙연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간 만남을) 우리가 먼저 다리 놔보면 어떻겠냐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남이) 계획된 것이라기보단 며칠 사이에 얘기 나누시면서 자연스럽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이 전 총리에 이어 오는 28일에는 이 대표와 회동한다. 3총리 회동은 정 전 총리와 이 대표 회동 직후에 날짜가 조율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3총리 회동은) 이낙연 전 총리가 1월부터 신당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니까 아마 시점은 그 전이 되지 않겠다. 유의미하게 하려면 연말 전 주중에 어떻게든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

"인천에서 호남 뺏어 경남으로"

유성열 예비후보, 'I자형 고속철도 건설' 공약 발표 "새만금, 단독 아닌 연계 국가사업으로 발전시켜야"



제22대 총선 전북 정읍시·고창 군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3선 경력의 유성열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26일 인천에서 호남으로 뺏어 경남으로 향하는 'I자형 고속철도' 건설을 첫 번째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성열 예비후보는 "현 정부의 미흡하고 어리숙한 운영으로 새만금잼버리가 성공하지 못했다"며 "그 책임은 정치적으로 허약한 전북에 떠넘기며 새만금SOC예산까지 보복삭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새만금사업의 목적 자체가 수차례 변경되고 결국 비전 자체가 흐려진 것도 윤석열정권의 보복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예산을 살려내겠다고 나선 전북정치권, 지난 11월 초 도민들의 힘까지 빌려 새만금예산 복원 대규모 상경집회까지 열었지만 한달 뒤 받아들인 성적표는 결국 부처 반영액 6,626억원(삭감 후 반영액 1,479억원)에서 32% 2,147억원이 삭감된 성적이었다. 유 예비후보는 "혹자는 이걸 두고 우리가 잘해서 3000억을 복원했다는 식으로 포장하며 도민들을 현혹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사업이 더이상 짊어지지

않고 국가사업으로서 굳건히 추진된다면 새로운 국가사업으로의 연계 또는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I자형 고속철도 건설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성열 예비후보는 "I자형 고속철도"는 인천공항에서 새만금-무안공항-여수공항-김해공항-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다. 이 사업에서 '새만금신공항'은 필연적 요소가 되고,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의 4차선 확장까지 다시 비중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놓기에도 용이하다. 사업 실현의 가능성과 공생발전이란 측면에서도 인천과 충청, 전북과 전남, 경남까지 함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유성열 예비후보는 "I자형 고속철도를 통해 새만금을 그 중심에 놓고 연계 국가사업이란 명분을 통해 새만금만을 위한 특별행정구역 설치 등 전북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면 전북 도민들이 염원하던 새만금을 통한 전북의 획기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I자형 고속철도" 건설 이후에는 이를 활용해 최대 10만톤급 화물선이 드나들 수 있는 새만금신항만 건설 등 전북의 신산업발전·육성과 산업 고도화를 위한 아이템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읍과 고창은 새만금과 근접한 배후도시로서 다양한 산업적 혜택을 보게 된다"고 예상했다. /특별취재반

"내년 산란서식장 공모 군산·부안 선정 환영" "인적 쇄신, 필수 불가결"

민중 이원택 의원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자연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인 '2024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공모사업'에 군산시와 부안군이 선정돼 각각 총 4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확보하게 됐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해양수산부의 2024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공모에 군산시와 부안군이 선정돼 각각 총 4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확보하게 됐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해양수산부의 2024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공모에 군산시와 부안군이 선정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2024~28년) 군산시는 고군산 일대에, 부안군은 변산면·위도면 일대에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원택 의원은 "군산시와 부안군이 해수부가 실시한 '24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공모'에 선정돼 수산자원 회복과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하게 됐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촌현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국에서 13개소가 선정돼 6개소가 선정됐는데 전북이 유일하게 2개소가 선정됐다"며 "이를 위해 애쓰신 김관영 도지사, 권익현 부안군수,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민중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17일 고창에 이어 23일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해결사 윤준병의 해결하는 정치' 북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학수·심덕섭·강광·김성기·박우정 전현직 군수 및 안호영·양정숙 국회의원 등 지역사회 각계 인사와 2,5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발 디딜 틈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축전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관영 도지사, 흥외표 원내대표 및 전·현직 국회의원 20여명이 영상축사를 보내 축하했다. 정읍과 고창에서 각각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저자와의 대화, 사인회, 포토타임으로 저자와 지역 주민이 진솔하게 소통하며 화합하는 시

간으로 이루어졌다. 저자와의 대화에서는 예산이 확정되면서 예산 확보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에서 논의된 올 드보이들의 불출마 내지 협치출마에 대한 질문으로 궁금증을 해소한 시간이기도 했다. 총선기획단에서 논의된 중진 출마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전장배 전 장관의 불출마가 그 답이라며 선거는 결국 변화의 경쟁이기에 "인적 쇄신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모 의원님께서 현역 시절 말씀하셨던 것처럼 "훌려간 물은 절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검찰 압수수색, 명백한 선거방해 행위"

성준후 예비후보, "김용 위증교사 혐의 관련자들과 연락도 안해"



김용 전 민주당 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준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성 부대변인이 "검찰의 선거개입"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원·임실·순창 예비후보인 성 부대변인은 26일 전북도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아침 7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선거방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용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자료들은 일면식도 없고 전화 한번 한 적이 없으며 캠프에서 만난 이도 지난 해 대선이 끝난 이후 전화통화나 만남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10월 귀향해서 임실에 살고 있는데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은 압수수색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권력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성 부대변인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성 부대변인 휴대전화를 비롯해 김 전 부원장이 보낸 출판기념회 편지와 식선 등을 압수했다. 그는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한동훈 전 장관의 등판에 맞춘 이재명에게 대한 탄압"이라며 "남원·임실·순창 예비후보 등록일에 맞춘 검찰의 선거 방해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특별취재반